

## [신약 속 미로 찾기]

###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구요?

권준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찬양하고 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슨 소린가? 화평은커녕 도리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같은 복음서 안에서도 서로 상반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선 알아야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같이 자라던 형제들이나 이웃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직장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간다고 나서는 가장을 둔 가정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 가정에 적지 않은 분란(?)을 일으키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긴 영향」의 다름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성과 속의 분리는 우리에게 많은 분쟁거리를 준다. 초대 교회에서 발생하였고, 우리주변에서도 많이 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기보다는 분쟁이 전보다 심하게 오곤 함을 보아 왔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부산물이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데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인데 그래도 따르겠냐’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내쫓기고, 고난당하고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인데”하고 후회할 사람들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친구들과와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핍박과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평강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신 것은 아닌가 의문하고 예수님 그 자체에도 회의가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한 때 왕따(?)였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갈등과 분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 식으로, 평강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쫓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됨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둔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닐까?

\* 출처 : 온누리신문